

연안안전지킴이 숨은 조력자 역할 '톡톡'

목포해경, 10명 선발 5개소 배치 운영 익수자 구조 활약...민·관 협력 큰 호응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연안안전지킴이가 연안사고 위험지역의 순찰 및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담당하며 해양경찰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전국 84개 연안사고 위험구역에 총 168명의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운영했다.

이들은 해안가, 갯바위 등 연안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매달 주말 4회, 평일 11회에 걸쳐 3~4시간씩 도보 순찰 및 안전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안활동객이 많은 상황에는 순찰 구역 내에 상주해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는 민·관협력을 통한 연안사고 예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목포해경도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0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선발하고 관내 연안사고 위험구역 5개소에 배치해 운영 중이다.

최근 목포 관내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해상에서 익수자를 발견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익수자 구조에 큰 활약을 펼쳤다.

목포시 평화광장 일원을 담당하는 강한울, 흥병계 대원은 지난 23일 오후 2시 55분께 순찰활동 종료 후 휴식 중 갯바위 매표소 인근 해상에서 30대 남성 익수자를 목격하고 신속하게 관할 목포해경 서산파출소에 신고했다.

이들은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익수자 수색·구조업무에 헌신을 다하며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이에 임재수 서장이 익수자 구조업무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연안안전지킴이 흥병계·강한울씨와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지난 27일 이들을 직접 찾아가 감사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강한울 대원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헌신을 다하는 연안안전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소속 연안안전지킴이 10명을 대상으로 연안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요령, 응급처치법 등에 대해 매 분기마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포=김동균 기자

강진 백운동 원림, 안심 관광지 선정 호남 3대 정원...자연·인공 조화 이뤄

강진군은 백운동 원림이 한국관광공사 가 발표한 '가을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강진 백운동 원림은 담양 소쇄원, 완도 보길도의 세연정 등과 함께 호남의 3대 정원으로 불리고 있으며, 조선 선비들의 은거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조선 중기의 처사 이담로(1627-1701)가 들어와 계곡 옆 바위에 '백운동(白雲洞)'이라 세고 조영(造營)한 원림으로, 자연과 인공이 적절히 배합된 배치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이루며 우리 전통 원림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다.

이후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12년 이곳을 다녀간 뒤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제자 초의선사에게 백운동을 그리게 하고,

백운동 원림의 12승경을 노래한 시문을 남겼는데 이를 근거로 유서 깊은 전통별서의 모습을 재현했다.

또한 백운동 원림 인근에는 월출산 아래 넓게 펼쳐진 33.3ha에 이르는 강진 다원과 소박한 것의 아름다운 지닌 천년고찰 무위사 등이 인접해 있어 가족과 연인이 함께 방문해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백운동 원림과 더불어 가우도, 강진만 생태공원, 다산초당 등의 관광지와 한정식, 회춘탕, 전어요리와 같은 맛도 즐길 수 있는 남도 답사 1번지다"며 "아름답고 깨끗한 강진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월출산 도갑사서 도선국사문화예술제 군민 피로감 해소·문화향유 기회 제공

군민 피로감 해소·문화향유 기회 제공

영암군은 최근 월출산 도갑사(주지 수관스님) 경내에서 제16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선국사 차례제, 범스님 추모문화제, 산사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출신 작가들로 구성된 월출미술인회 작가 7명이 도갑사를 비롯한 월출산 주변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낸 그림을 제능기부로 도갑사 입구에 '천년의 향기'라는 주제 아래 작품들을 전시해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피로에 지쳐있는 군민들

의 심신 위안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범스님추모문화제와 산사음악회는 행사 당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이날 녹화된 영상은 오는 10월 3일 오전 10시 50분부터 KBC 광주방송 프로그램 '도갑사 산사음악회'로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간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도선국사의 생애뿐만 아니라 민중가수이자 작곡가로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노래로 위로하셨던 범스님의 위대한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산사음악회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영암, 노인돌봄 분야 민생지원 추진

영암군이 전남도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누적이 심한 노인돌봄 분야 종사자와 돌봄노인 이용자를 비롯해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장례식장에 긴급 민생안정 지원에 나선다.

28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노인돌봄 분야 민생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돌봄이 더욱 취약해진 어르신들과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돌봄을 책임지는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장례식장 운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위해 정부 5차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의 돌봄이 더욱 어려워진 거동불편 노인들을 위해 전화와 방문을 통해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에게 민생지원금을 각 10만 원씩 지원하고,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동불편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장례식장에는 100만원씩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지원금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큰 힘과 위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최하림연구회 창립총회 및 제1회 최하림문학 심포지엄. /신안군 제공

신안 팔금도에 최하림 시인 문학공간 만든다

신안군 팔금도에 최하림 시인 문학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박우량 군수는 최근 서울 기아360 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최하림 문학제'에 참석해 최하림 시인의 고향에 문학정신과 시 세계를 살피볼 수 있고 시인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 앞서 최하림연구회 창립총회와 출범식이 열렸다. 박우량 군수가 최하림연구회에서 엮은 연구서 '최하림 다시 읽기'를 그의 아내 정숙희 여사에게 전달하는 증정식도 가졌다.

1부 문학 심포지엄에서는 정끝별 교수(이화여대), 유성호 교수(한양대), 조강석 교수(연세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추모 산문 낭독과 추모 시를 낭송하며 시인의 삶과 시 세계를 되돌아 보는 시간으로 열렸다.

박우량 군수는 축사를 통해 "최하림 시인은 역사를 외면하지 않았던 영원한 스승으로, 최하림 문학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인의 고향인 신안군 팔금도에 기념관 및 시비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타계한 최하림 시인은 1939년 신안군 팔금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유신시대·광주 민주화운동 등 격동의 시대 한복판에서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서정적인 언어로 시대를 비판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 세계를 구현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황창오 원산동 예비군 동대장, 라면 후원

목포시 원산동은 최근 황창오 원산동 예비군동대장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랑의 라면 10박스를 원산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라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겹게 지내고 있는 조순·한부모가구 10세대에 전달됐다.

황창오 동대장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관내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작

은 도서관 등에 라면을 후원하며 이웃 사랑의 귀감이 되고 있다.

오세은 원산동장은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시는 황창오 동대장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이 넘치는 원산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다사랑봉사회, 취약계층 쌀 나눔

다사랑봉사회(회장 김태운)와 새진강나눔(원장 임재은)은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강진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후원 물품은 부성건설 박병태 대표, 금봉건설 나준엽 대표, 경성건설 김성환 대표의 기탁으로 150만원 상당의 쌀이 마련됐다.

후원받은 쌀은 독거노인을 포함한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약 100여 명에게 전달했다.

다사랑봉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트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따뜻한 나눔 실천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농협 진도군지부, 깨끗한 진도만들기 봉사

농협 진도군지부는 최근 NH농협에서 진도군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원한 지역의 학생인재들과 함께 '깨끗한 진도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진도군청 출입구에서 군청 민원실 방문 군민 대상으로 방문전화 안내 및 손소독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진도군청 인근의 쓰레기를 줍는 등 깨끗한 진도만들기에 앞장섰다.

농협 진도군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앞으로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진도군 인재육성에 더 많은 참여 기회와 보다 알찬 지역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